

여성 힙합의 음악적 특성이 여성 힙합 패션에 미친 영향

- 국내 최초 여성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Unpretty Rapstar)』를 중심으로 -

이서도 · 염미선^{*,*}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Effects of the Musical Characteristic of Female Hip-hop on Female Hip-hop Fashion

- Focus on Unpretty Rapstar the First Female Hip-hop Survival Program in Domestic -

Suh-Do Lee · Mi-Sun Yum^{*,*}

Master Course,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 Dep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16. 6. 29 접수; 2016. 8. 23 수정; 2016. 8. 2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urrent trends in hip-hop fashion in Korea and how they are influenced by musical characteristics of female hip-hop. This study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female hip-hop music and their fashion through the history of hip-hop. Data has been collected and analyzed from broadcastings, performances, music videos, and album jackets of female musicians who appeared in the cable television program 'Unpretty Rapstar' by MNET during two seasons in 2015. "Unpretty Rapstar" is the first program to focus on the music and fashion of female Korean hip-hop musicians. For the theoretical review, this article examines books and journal articles, which provide insight into the history and formation of hip-hop. It also analyzes the hip-hop styles of female musicians in Korea through Hiphopplaya.com, an Internet site specializing in hip-ho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fashion of female Korean hip hop musicians is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yles of female hip-hop artists come out of Glam Style, which emphasizes femininity, but is also composed of a practical and dynamic street casual style. Most of the clothes are skinny jeans and sweat suits with vertical and slim-fit silhouettes or stadium jackets and jersey jackets with oversized silhouettes. The main colors of these outfits are prominently yellow and red with darker grayish tones, but also include natural achromatic colors.

Key Words: Hip-hop(힙합), Female hip-hop music(여성 힙합 음악), Female hip-hop fashion(여성 힙합 패션)

I. 서론

20세기 이후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그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주어 언어, 음악, 패션 등의 다양한 표현 양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주체로서 젊은 세대들

은 대중매체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하나의 소비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의 최초 여성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등장과 인기는 새로운 여성 전문 힙합 스트리트 캐주얼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영역까지 확장되어 여성 소비계층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 케이블 방송 엠넷(Mnet)에서 제작한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y)를 시작으로 힙합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힙합 장르가 대중 패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힙합은 미국 흑인 남성의 영역으로 시작되었지만, 최근 들어 여성 힙합 뮤지션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기획된 국내 최초 여성 힙합 서바이벌 언프리티 랩스타(Unpretty Rapstar)가 방영되면서부터 대중들에게 여성 힙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대중 패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이 힙합패션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영역에서 시작되어 발전하였지만,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을 동경하는 성향을 일컫는 신조어인 걸크러쉬(Girl Crush)의 영향으로 여성 힙합 스트리트 패션에서 여성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TV프로그램을 통한 여성 힙합의 대중적인 인기는 남성 힙합에 가려져 확립되지 못한 여성 힙합이 자리매김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힙합의 음악적 특성과 힙합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은지, 이정민(2010)은 국내 힙합 뮤지션의 패션을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의 음반 판매 순위별로 유형별 스타일링 분석을 하였고, 박한힘(2011)은 힙합문화의 음악적 특성변화가 대중패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운(2012)은 2000년대 이후의 국내 힙합 패션을 국외힙합 트렌드와 비교하여 힙합 패션의 시기적 변화와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박송애(2015)는 셀러브리티의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여 대중문화현상이 패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힙합의 음악적 특성과 힙합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이 남성 힙합 패션 스타일 분석에 국한되어 있으며, 여성 힙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중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여성 힙합의 음

악적 특성이 그들의 힙합 패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고찰하고 이미지 자료를 분석하여 여성 힙합 패션 스타일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여성 힙합 패션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힙합 전문 서적과 선행연구, 힙합 인터넷 전문 사이트 www.hiphopplaya.com 등을 활용하여 힙합의 음악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 여성 힙합 패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2015년 1월에서 3월, 9월에서 11월에 방영된 국내 최초 여성 힙합 서바이벌 언프리티 랩스타(Unpretty Rapstar) 시즌 1, 2에서 보여지는 프로그램 영상을 통해 총 813개 패션 이미지를 수집하여 각 이미지에서 보이는 패션을 아이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힙합 패션에 나타난 색채 분석을 위해 Adobe Photoshop CS6를 사용하여 총 1658개의 색을 추출하였으며, 먼셀 변환 프로그램(Munsell Conversion Version 12.0)을 이용하여 H/VC 값으로 전환하고, 10색상환으로 분석한 뒤 PCCS의 색체계의 색조 분류에 따라 12색조로 나누어 색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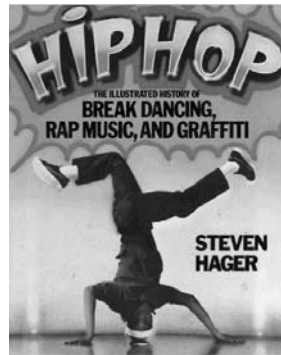
1. 힙합의 형성 및 음악적 특성

1) 힙합의 정의 및 형성

힙합은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서 일반적으로 힙합 음악 장르를 가리킨다(Edwards, 최경은, 2015). 이러한 힙합은 1973년 뉴욕 브롱스의 경제적으로 가장 황폐화된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나타난 지역적 현상이다(Starr & Waterman, 김영대, 조일동, 2015). 힙합의 어원은 엉덩이를 뜻하는 힙(hip)과 '뛰다'라는 움직임을 뜻하는 홉(hop)의 합성으로 흑인들의 정서를 문화적으로 포괄한다(이인성 외, 2006). 또한 '힙'과 '홉'은 시대별로 뜻이 조금씩 달랐는데, '힙'은 1960년대 히피를 뜻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유행에 민감한 신세대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김태환, 2008). '홉'은 1950년대 댄스파티를 뜻하며 1960년대에는 '비트족'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이인성



〈그림 1〉 The Village Voice
(출처: <https://www.pinterest.com>)



〈그림 2〉 Steven Hager(Hip Hop)
(출처: <http://www.amazon.com>)

외, 2006). 힙합이라는 용어는 1982년 미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스티븐 헤거(Steven Hager)가 〈그림 1〉의 뉴욕 최대 규모의 신문인 빌리지 보이스 『The Village Voice』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힙합의 대부인 아프리카 밤바타(Afrika Bambaataa)가 힙합을 비보이, 디제이, 엠씨, 그라피티 등의 요소로 나누었다(Edwards, 최경은, 2015). 또한 스티븐 헤거가 1984년에 출간한 〈그림 2〉의 저서 『Hip Hop』에서 다양한 문화와 그 구성 요소들을 통틀어 힙합이라고 지칭하면서 통용되기 시작했다(Edwards, 최경은, 2015). 힙합의 요소들은 힙합 분야의 전문가나 여러 학자들에 따라서 상이하나, 미국의 대중음악에 대해 저술된 책인 『케임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의 사이먼 프리스(Simon Frith), 윌 스트로(Will Straw), 존 스트리트(John Street)는 힙합이 랩 음악뿐만 아니라 그라피티, 브레이크 댄싱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Frith, Straw, Street, 장호연, 2005), 미국의 음악학자 래리 스타(Larry Starr)와 크리스토퍼 워터먼(Christopher Waterman)은 힙합이 시각 예술인 그라피티, 브레이크 댄싱, 음악, 옷, 언어를 포함하는 문화적 복합체라고 하였다(Starr, & Waterman, 김영대, 조일동, 2015). 이와 같이 힙합은 일반적으로 춤, 음악, 미술의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그림 3〉과 같이 디제이가 주는 비트에 맞춰 브레이크 댄스(Break Dance)를 추는 남성을 비보이(B-boy)이라 하며, 〈그림 4〉와 같이 두 대의 턴테이블(turntable)과 디스코 믹서(Disco Mixer)를 이용하여 래퍼에게 브레이크 비트를 제공하는 사람을 디제이(Disc Jockey)

이라 한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디제이가 들어주는 비트에 리듬을 맞춰 랩을 하는 사람인 엠씨(Master of Ceremonies)와 그라피티(Graffiti)에서 파생된 말로 〈그림 6〉과 같이 1967년 뉴욕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된 그라피티(Graffiti)로 구성되어 있다(Jeff, 유영희, 2014). 힙합 음악의 주된 주제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받는 차별, 멸시, 빈민계층의 삶과 부에 대한 환상 등이 내재되어 있다(이규탁, 2011). 이는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 백인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팔려 들어온 흑인 노예들이 거주하던 흑인 동네를 빈민가로 전락시켰고(이인성 외, 2006), 따라서 미국 사회 전반에서 소외된 미국 흑인들은 사회 구조적 모순의 비판과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흑인의 연대의식을 강조하는 특징을 형성하였다(이지현, 정은숙, 2002). 이와 같이 힙합 음악은 탄생배경과 정착 환경을 통해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여성 힙합 뮤지션들은 주변적 존재로 치부될 수 밖에 없었다(양재영, 2002). 따라서 여성 힙합 뮤지션들에게는 남성이 겪는 인종차별과 더불어 여성이라는 사회적 제약이 나타났으며(Jeff, 유영희, 2014), 이후 본격적으로 남성에 대항하며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2) 힙합의 시기별 유형 분류에 따른 음악적 특성

힙합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힙합의 음악적 특성을 발생부터의 발전과정을 시기



〈그림 3〉 B-boy
(출처:<http://kudago.com>)



〈그림 4〉 DJ
(출처:<http://hustletv.tv>)



〈그림 5〉 MC
(출처:<http://blog.naver.com>)



〈그림 6〉 Graffiti
(출처:<http://egloos.zum.com>)



〈그림 7〉
현진영 〈New Dance1〉
(출처:<https://namu.moe>)



〈그림 8〉
듀스 〈Force Deux〉
(출처:<http://music.bugs.co.kr>)



〈그림 9〉 지누션
(출처:<https://ilryricsbuzz.com>)



〈그림 10〉 에픽하이
(출처:<https://namu.wiki>)

별로 분류하고 있다. 강은지, 이정민(2010)은 1980년대 초반을 올드 스쿨, 중반을 뉴 스쿨로 나누었으며, 1990년대를 이스트 코스트와 웨스트 코스트로 구분하는 등 2000년대까지의 시기를 분류하였다. 박한힘(2011)은 태동기, 활성화, 성숙기, 번영기로 나누었다. 또한 저명한 미국의 힙합 연구 전문가 폴 에드워즈는 힙합이 처음 시작된 1973년대부터 뉴 스쿨이 등장한 1982년 전까지를 올드 스쿨로 나누었다(Edwards, 최경은, 2015).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분류 기준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힙합을 시기에 따라서 크게 도입기, 정착기, 황금기, 유지기, 재도약기로 나누었다. 도입기는 힙합 음악이 탄생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며, 이 시기를 올드 스쿨이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는 디제이 쿨허크가 믹싱 기술을 도입하고 알앤비와 펑크 음악의 브레이크를 반복하는 음악적 특성이 나타난다(박한힘, 2011). 1980년대 후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힙합의 정착기로 뉴 스쿨이라고 부르며, 이 시기는 최초로 녹음된 랩 앨범을 발매한 힙합 뮤지션 슈가힐 갱의 Rapper's Delight가 인기를 얻으면서 힙합 음악이 세계적으로 상업적인 성장을 하였다(윤여훈, 2004). 정착기에는 힙합 음악이 믹싱을 통해 변형되거나 새로운 리듬

이 생산되면서 강렬하고 거친 사운드로 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Edwards, 최경은, 2015). 1990년대는 힙합의 황금기라 불리며 음악뿐 아니라 문화 전반에 걸쳐 힙합이 유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음악적 특성에 따라 이스트 코스트와 웨스트 코스트로 나누며, 이스트 코스트는 심오한 가사와 하드코어적 사운드가 특징이고(이지현, 정은숙, 2002), 웨스트 코스트는 비트와 랩의 조화를 중시하며, 템포가 느려 음산하고 무거운 느낌의 사운드가 특징이다(이지현, 정은숙, 2002).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는 힙합 음악의 유지기로 들어서면서 남부 힙합이 유행하기 시작했다(유지운, 2015). 이 시기에는 힙합의 남성적 특성에 대항하는 얼터너티브 힙합이 등장하였으며, 네오소울이라는 갱스터 랩과는 반대되는 순화된 가사와 부드러운 사운드가 특징으로 나타났다(Jeff, 유영희, 2014). 국내에서는 힙합 음악이 1990년대에 도입되면서 당시 자유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형성된 신세대 문화에 흡수되어 대중음악에 영향을 미쳤다(이영미, 2014). 당시 힙합은 각 요소별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한국의 감성에 맞게 변용되어 랩 댄스라는 힙합 음악 장르를 만들어냈다. 이와 같이 국내에 유입된 힙합 문화의 정착 과정을 시기별로 분류

〈표 1〉 힙합의 시기별 유형분류 따른 음악적 특성

시기별 구분(년도)		특성		대표이미지	
1970~1980 도입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제이 쿨 허크가 믹싱기술을 도입하여 힙합 음악을 창시함 		 <p>DJ Kool Herc (출처: http://www.electrospectivemusic.com)</p>	
	음악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알앤비나 펑크 음악의 브레이크를 반복 재생하며 랩이 발달함 			
1980~1990 정착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가힐 갱의 〈Rapper's Delight〉가 히트치면서 전 세계에 힙합음악을 알리는 계기가 됨 힙합이 상업적으로 성장하게 됨 		 <p>Sugarhill Gang 〈Rapper's Delight〉 (출처: http://tr.uetoo.co)</p>	
	음악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형 및 믹싱을 통한 새로운 리듬 강렬하고 거친 사운드로 변화함 			
1990 이스트 코스트 & 웨스트 코스트 황금기	국외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엠씨해머의 〈Please Hammer Don't Hurt' Em〉가 음반 역사상 가장 많은 판매액을 올리며 힙합의 꾸준한 유행을 이어감 	 <p>MC Hammer 〈Please Hammer Don't Hurt' Em〉 (출처: http://genius.com)</p>	
		음악적 특성	<table border="0"> <tr> <td>이스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드코어적인 사운드와 심오한 가사 </td> </tr> <tr> <td>웨스트</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트와 랩의 조화를 중시 템포가 느려 음산하고 무거운 느낌의 사운드 </td> </tr> </table>		이스트
이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드코어적인 사운드와 심오한 가사 				
웨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트와 랩의 조화를 중시 템포가 느려 음산하고 무거운 느낌의 사운드 				
1990 도입기	국내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주의적인 사회분위기로 신세대문화 발생 	 <p>현진영 (출처: http://www.hiphoper.com/)</p>	
		음악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댄스음악과 결합한 독자적 장르인 랩 댄스 		
2000~2010 남부 힙합 유지기	국외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터너티브 힙합의 등장으로 여성 힙합 뮤지션들이 힙합의 남성적 특성에 대항함 	 <p>Lauryn Hill (출처: https://i.ytimg.com)</p>	
		음악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터너티브 힙합의 네오소울이 등장하면서 갱스터 랩과는 반대되는 순화된 가사와 부드러운 사운드로 변화함 남부 힙합의 전형적인 파티사운드와 기존 알앤비가 합쳐진 크렁크앤비 장르가 나타남 		
2000 황금기	국내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미교포출신 뮤지션과 PC커뮤니티 출현 	 <p>에픽하이 (출처: http://www.instiz.net/g)</p>	
		음악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통힙합에 가까워지며 독립된 스타일 구축 		
2010~2015 재도약기	국외 · 국내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의 경계가 모호해짐 	 <p>ZICO (출처: http://magazine.hiphopplaya.com)</p>	
		음악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극적인 비트와 감각적이고 개성적인 사운드가 주를 이룸 기술의 발달로 사운드에 다양성 부여 		



〈그림 11〉 Sequence
(출처: <http://www.kickmag.net>)



〈그림 12〉 Roxanne Shante
(출처: <http://www.amoeba.com>)



〈그림 13〉 Salt-N-Pepa
(출처: <http://www.allmusic.com>)



〈그림 14〉 Queen Latifah
(출처: <http://www.rhapsody.com>)



〈그림 15〉 윤미래
(출처: <http://entertain.naver.com>)



〈그림 16〉 제시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17〉 2NE1
(출처: <http://www.newsen.com>)



〈그림 18〉 쇼미더머니
(출처: <http://www.mnet.com>)



〈그림 19〉 언프리티랩스타
(출처: <http://mnettv.interest.me>)

해 보면, 1990년대는 가수 현진영이 〈그림 7〉의 앨범 *New Dance 1*으로 데뷔하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생소하던 한국어 랩을 선보이며 힙합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다(이동연 외, 2012). 1993년 그룹 듀스로 데뷔한 가수 이현도는 〈그림 8〉의 1995년 듀스의 세 번째 앨범 *Force Deux*를 통해 힙합이 한국에서 어떻게 변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이동연 외, 2012). 1990년대 후반에는 재미교포 출신의 힙합 뮤지션들과 PC통신에 기반을 둔 블랙뮤직 커뮤니티의 등장으로 한국 대중음악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등 점차 정통 힙합에 가까워지고자 노력하였다(김영대 외, 2008). 특히 1997년 데뷔한 재미교포 출신의 그룹 〈그림 9〉의 지누션은 앨범 가솔린을 통해 웨스트 코스트 스타일과 이스트 코스트 스타일의 랩을 혼용하여 정통에 가까운 힙합 음악을 보여주었다(김태한, 2008). 또한 1999년 앨범 *Year of Tiger*로 데뷔한 드렁큰 타이거는 정통 힙합 음악을 표방하며 한국 힙합 음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이보연, 2015). 2000년대는 국내 힙합의 황금기로 불리며 기존 한국 대중음악의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된 힙합 음악 스타일 및 생산방식을 선택하면서 힙합 음악이 인기를 끌며 산업화되기 시작했다(김영대 외, 2008). 2004년 〈그림 10〉의 앨범 *Map of the human soul*을 발표한 예

픽하이는 힙합 음악의 대중적인 흥행 가능성을 실현시키며 힙합 음악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김태한, 2008). 2010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는 힙합 음악의 재도약기로 구분된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힙합 음악이 다른 음악 장르와 결합하면서 감각적이고 개성 있는 사운드가 나타났다(박한힘, 2011). 국내에서는 2011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여 현재 힙합 3세대라 불리는 힙합 뮤지션 ZICO가 힙합 음악의 장르적 한계를 넘어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쇼 미더머니(*Show Me The Money*), 언프리티 랩스타(*Unprety Rapstar*) 등 힙합 전문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프로듀서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네이버뮤직, 2016). 이와 같이 국내외 힙합 음악의 시기별 유형분류에 따른 음악적 특성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여성 힙합 음악








1) 여성 힙합의 형성과정

힙합 음악은 뉴욕 브롱스의 흑인 남성으로부터 발생되면서 탄생 배경과 정착 환경을 통해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힙합 음악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변적인 존재로 인식

되었지만, 여성 힙합 뮤지션 역시 힙합의 발생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함께 성장해왔다. 이러한 여성 힙합을 시기별로 분류해보면, 1970년대 힙합이 처음 발생된 후 1979년 미국의 대표적인 힙합 레이블 슈가힐(Sugarhill)과 여성 그룹인 〈그림 11〉의 시퀀스(Sequence)가 앨범을 발매하였다(윤여훈, 2004).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985년경에는 노래 가사와 음악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포스트모던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는 모든 문화권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나타나는 권력 격차를 이해하고 표명하였다(Judith & Ellen, 이미배, 2002).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림 12〉의 록산 샐티(Roxanne Shante)와 〈그림 13〉의 솔트 앤 페퍼(Salt-N-Pepa) 등의 여성 힙합 뮤지션들이 점차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1989년 싱글 앨범 Ladies First를 발표한 〈그림 14〉의 퀸 라티파(Queen Latifah)는 그녀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어 여성 힙합 뮤지션들이 남성 힙합 뮤지션들과 대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Jeff, 유영희, 2014). 이러한 강하고 독립적인 여성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여성 힙합 뮤지션들은 본격적으로 남성에 대항하며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Starr, & Waterman, 김영대, 조일동, 2015). 이후 1990년대에는 대표적인 얼터너티브 여성 힙합 뮤지션인 로린 힐(Lauryn Hill)이 1998년 발매한 앨범 Doo Wop을 통해 알앤비 소울이 아닌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인 힙합 음악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었다(Starr, & Waterman, 김영대, 조일동, 2015). 또한 이 시기에 역사상 가장 성공한 그룹이라 불리는 흑인 여성 트리오 TLC가 등장하면서 혁신적인 사운드, 댄스, 패션, 라이프 스타일 등을 유행시키며 여성 힙합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박찬은, 2013). 2000년대에는 싱글 앨범 Goodies로 남성에게 독립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방한 여성 힙합 뮤지션 씨애라(Ciara)가 등장하면서 7주간 빌보드차트 1위를 기록하였다(김정원 외, 2014). 2010년대는 힙합 음악이 다양한 음악 장르와 결합하면서 감각적이고 개성 있는 스타일이 나타났다(박한희, 2011). 이 시기에 등장한 니키 미나즈(Nicki Minaj)는 첫 정규 앨범 Pink Friday를 발매하면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

었다(김정원 외, 2014). 국내에서는 1970년대에 강하고 지적인 여장부의 이미지가 등장하면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외향적으로 강한 여자가 대세가 되었다(이영미, 2014). 이 무렵 1997년 재미교포 출신 멤버로 구성된 혼성그룹 업타운(Uptown)의 유일한 여성 멤버였던 윤미래가 2002년 여성 솔로로서 최초의 힙합 앨범 Gemini를 발표하게 되었고, 파워풀한 랩스타일로 2011년 미국 음악 사이트 MTV에서 세계최고의 여성 래퍼 톱 12위에 선정되며 오늘날까지 한국에서의 독보적인 여성 힙합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림 15)(한동운, 2015). 2000년대는 힙합 음악이 독립된 스타일과 생산방식을 구축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며 성장했던 시기로, 목직한 중저음의 제2의 윤미래라고 불리는 〈그림 16〉의 제시가 앨범 Get Up으로 데뷔하는 등 솔로 여성 힙합 뮤지션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한동운, 2015).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국내 여성 힙합 음악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간 인물은 2009년 힙합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YG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4인조 여성 힙합 아이돌 그룹 2NE1이었다(그림 17). 2000년대 초반까지는 댄스 음악의 인기가 더 컸기 때문에 힙합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변용된 스타일인 랩 댄스 장르에서는 대부분 댄스음악을 기반으로 힙합을 가미한 정도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국내 여성 힙합의 이미지는 단지 표면적인 상품성을 목적으로 힙합 스타일을 모방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2NE1은 세련되면서도 독특한 개성과 힙합을 가미시킨 다양한 음악스타일을 시도하면서 랩 댄스 내에 힙합 사운드의 비중을 더 키웠을 뿐만 아니라 음악과 패션은 물론 대중문화 산업 전반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러한 여성 힙합 걸 그룹의 기세를 이어서 2015년 네오소울 힙합을 주된 스타일로 정통 힙합 음악을 추구하는 국내 3인조 여성 힙합 그룹 러버스올이 등장하였다(강수진, 2015). 2010년대 국내 힙합 음악은 2012년에 제작된 실력 있는 아마추어 래퍼를 찾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의 쇼 미 더 머니(Show Me The Money)의 영향으로 대중적인 유행을 만들었다(그림 18). 이는 현재까지 시즌을 거듭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국내 힙합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이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의 인기에 영향을

〈표 2〉 여성 힙합의 시기별 유형분류에 따른 음악적 특성

시기별 구분(년도)		특 성		대표이미지
1970 도입기	배경	• 1979년 최초의 여성 힙합뮤지션 시퀀스 출현		 sequence (출처: https://i.ytimg.com)
	음악적 특성	• 기존 알앤비나 펑크 음악의 브레이크를 반복 재생하며 랩이 발달함		
1980 정착기	배경	• 1980년대 당시 남녀격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래퍼 등장		 Queen Latifah (출처: http://www.billboard.com)
	음악적 특성	• 변형 및 믹싱으로 새로운 리듬 생산 • 강렬하고 거친 사운드로 변화함		
1990 황금기	국외	배경	• 1990년 로린힐이 〈Doo Wop〉을 발표하면서 얼터너티브 힙합을 정립함. • 1991년 역사상 가장 성공한 걸그룹이라 불리는 TLC가 등장	 Lauryn Hill 〈Doo Wop〉 (출처: http://www.amazon.com)
		음악적 특성	• 네오소울이 등장하면서 순화된 가사와 부드러운 사운드로 변화함	
1990 도입기	국내	배경	• 1997년 윤미래가 재미교포출신 혼성그룹 업타운으로 데뷔 • 자유주의적인 사회분위기로 신세대문화 발생	 윤미래 (출처: http://post.naver.com)
		음악적 특성	• 댄스음악과 결합한 독자적 랩 댄스 등장 • 이국적인 멜로디와 미국 서부힙합 스타일	
2000 유지기	국외	배경	• 2005년 씨애라가 〈Goodies〉를 발표하면서 7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여성 아티스트 데뷔 싱글 최장기록을 기록.	 Ciara (출처: http://gangstaraptalk.com)
		음악적 특성	• 남부 힙합의 전형적인 파티사운드와 기존 알앤비가 합쳐진 크렁크앤비 장르가 나타남	
2000 황금기	국내	배경	• 2005년 제2의 윤미래라 불리는 여성 힙합 뮤지션 제시 등장 • 2009년 YG엔터테인먼트에서 2NE1 데뷔	 2NE1 (출처: http://img14.deviantart.net)
		음악적 특성	• 힙합 음악이 정통힙합에 가까워지며 독립된 스타일을 구축	
2010~2015 재도약기	국외	배경	• 음악의 경계가 모호해짐 • 2010년 니키미나즈가 등장하면서 상업적인 성공	 Nicki minaj (출처: http://orig03.deviantart.net)
	국내	음악적 특성	• 자극적인 비트와 감각적이고 개성적인 다채로운 사운드가 주를 이룸 •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결합	

받은 힙합 뮤지션들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독자적인 힙합 음악과 힙합 패션을 구사하는 등 국내 힙합이 상업적으로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쇼 미더 머니의 인기에 힘입어 2015년에는 국내 최초 여자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엠넷의 언프리티 랩스타(Unprety Rapstar)가 방송되면서 국내에서는 아직 조명 받지 못한 여성 힙합 뮤지션들이 인기를 얻으며 새로운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그림 19).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힙합 뮤지션들이 기존의 TV 방송 등에서 보여졌던 상품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아닌 한 명의 전문 힙합 뮤지션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국내 여성 힙합 음악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최초 여성 힙합 서바이벌 언프리티 랩스타(Unprety Rapstar)를 통해 보여지는 여성 힙합 패션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여성 힙합의 음악적 특성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음악은 얼터너티브(Alternative) 힙합으로 분류되는데 이것은 미국과 영국의 반상업적이고 비주류적인 면에 속하는 반문화 뮤지션들을 지칭하기 위해 1960년대 말에 사용된 말로(Shuker, 이정엽, 장호연, 1999), 기존 음악에 저항하는 음악을 묘사하는데 쓰이며, 여성의 관점 혹은 페미니스트적인 색을 띠는 음악과 관련되어서도 쓰인다(Starr, & Waterman, 김영대, 조일동, 2015). 이러한 얼터너티브 힙합의 페미니즘적인 음악은 컨템포러리 알앤비(Contemporary R&B) 혹은 네오소울(neo-soul)이라고도 하며, 이는 힙합과 알앤비가 섞인 것으로 힙합의 거친 느낌을 줄이고 알앤비의 부드러운 느낌을 더한 음악이 특징이다(Jeff, 유명희, 2014). 1990년대 말에는 거의 모든 주류 장르 밑에 대안적 서브 장르인 얼터너티브 섹션이 존재하였으며(Starr, & Waterman, 김영대, 조일동, 2015), 이를 통해 여성 힙합 음악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여성 힙합의 음악적 특성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여성 힙합 뮤지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는 남성우월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인종차별과 더불어 가정폭력,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들이 나타났다(이보연, 2015). 따라서 이 시기에 여성 힙합 음악에서는 남녀평등에

대한 저항정신이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로 나타난다. 1990년대는 힙합의 황금기로 다양한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시각적인 요소들이 중요해지게 되었다(강은지, 2010). 이에 따라 여성 힙합 뮤지션들은 페미니즘적인 특징을 강조하여 관능적인 이미지를 선보였으며, 음악에서도 사랑과 성적인 매력을 과시하는 주제가 많이 나타났다(이보연, 2015). 국내에서는 90년대 후반에 재미교포 출신의 힙합 뮤지션들의 등장으로 국내 힙합이 정통 힙합에 가까워지면서 이국적인 멜로디와 편곡 등의 미국 서부 힙합 스타일이 나타났다(김영대 외, 2008). 2000년대는 기술적, 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힙합 음악 장르가 등장하였다. 특히 크렁크앤비(Crunk&B)라 불리는 알앤비와 남부 힙합의 세부 장르인 크렁크를 결합시킨 새로운 장르가 유행하면서 힙합 리듬을 베이스로 알앤비 보컬을 더하는 음악 스타일이 많이 나타났다(김정원 외, 2014). 이 시기에 등장한 알앤비와 힙합 음악이 결합한 네오소울은 특유의 부드러운 느낌과 여성단결, 자기 개발적인 주제로 힙합 페미니즘이라 분류한다(Jeff, 유명희, 2014). 201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음악적 장르가 모호해짐에 따라 개성 있고 자유로운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음악적 활동 외에도 TV 쇼 프로그램이나 신인 아티스트 발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분야를 통해 입지를 다져온 국외 여성 힙합 뮤지션들에 비해 국내 힙합 뮤지션들의 상황은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국내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활동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국내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저조한 활동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들은 2010년대 이후 힙합 관련 TV프로그램들의 등장을 통해 대중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점차 활발해지면서 국내 힙합에 새로운 유행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여성 힙합의 시기별 유형분류에 따른 음악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3. 힙합 패션의 특성

1) 힙합 패션의 형성배경

힙합 패션은 하위문화의 한 장르인 힙합 음악의 영향을 받아 시대정신과 상황을 반영한 스트리트 패션이다(이지현, 정은숙, 1999). 힙합 패션이 나타나기 시작한 1970년대는 경제적 불황기로 기성 사회에 저항하는 세력인 젊은 세대들에 의해 반문화 뮤지션들의 영향으로 유행하였다(김영인 외, 2006). 이와 같이 힙합 패션은 힙합 음악의 발전과 함께 변화하며 오늘날 다양한 트렌드 및 문화적 요소들과 결합하는 등 대중패션으로 성장하고 있다(김윤, 2012). 이러한 음악에서 파생된 패션은 개인적, 집단적 주체성을 암시하며 집단을 구분짓는 성격을 갖고 있어(Shuker, 이정엽, 장호연, 1999) 음악의 장르를 구별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비주류 음악을 추종하는 하위문화 집단들은 그들을 구분 짓기 위해 그들만의 패션 스타일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힙합 패션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중매체를 통해 패션이나 댄스 등의 시각적 요소들이 부각되어 상업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매체 속 뮤지션들의 스타일 모방과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 스타일은 시청자들이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패션 등 힙합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

대중적인 문화가 발전하였다.

2) 힙합 패션의 시기별 특징

힙합 패션은 시기별로 힙합 음악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였다. 힙합 음악의 도입기인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초는 힙합 패션이 대중화된 시기로, 남녀구분 없이 통이 넓고 긴 드림 스타일의 실루엣이 많이 나타나며, 무채색의 모노톤 색상이 주를 이루었다(이인성 외, 2006).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그림 20>의 트랙수트가 있으며, 골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힙합 음악의 정착기로 사회 비판적인 음악적 특성이 나타나면서 거칠고 강렬한 사운드로 변화함에 따라 패션도 개성을 추구하며 구속과 억압을 벗어나고자 넉넉함을 추구하였다. 이 시기에 힙합 뮤지션 엠씨 해머가 전체적으로 통이 넓으면서 점점 좁아지는 <그림 21>의 배기 스타일을 유행시켰다(강은지, 이정민, 2010). 또한 여성 알앤비 힙합 그룹인 TLC의 등장으로 속옷이 보이게 팬츠를 내려 입거나 브라톱, 메탈릭 트레이닝 팬츠, 오버울 등 섹시하고 파격적인 힙합패션이 유행하게 되었다(김지



<그림 20> 트랙수트 (출처: <http://hiphople.com>)



<그림 21> 배기팬츠 (출처: <http://soulounge.egloos.com>)



<그림 22> TLC 패션 (출처: <https://namu.wiki>)



<그림 23> 글램 스타일 (출처: <http://lyrics.songonlyrics.net>)



<그림 24> 갱스터 스타일 (출처: <http://hiphople.com>)



<그림 25> 세미힙합 (출처: <http://enews24.interest.me>)



<그림 26> prep-hop (출처: <http://theworldofcelebrity.com>)



<그림 27> Slim Formal Suit (출처: <http://cafe.naver.com>)



<그림 28> Skurban (출처: <https://www.pinterest.com>)



<그림 29> Hip Hop Goth (출처: <https://kr.pinterest.com>)



〈그림 30〉
Hip Hop Tatto
(출처: <http://news.c.hosun.com>)



〈그림 31〉
힙합 스트리트 캐주얼
(출처: <http://w3.sbs.co.kr>)



〈그림 32〉
드링크스캔코드
(출처: <http://www.drinkscancode.com>)



〈그림 33〉
루스리스
(출처: <http://www.ruthless.kr>)



〈그림 34〉
미스치프
(출처: <http://www.mischief.co.kr>)

후, 2016)(그림 22). 1990년도에는 힙합 음악의 황금기로 불리며 지역에 따라 이스트 코스트(East Coast)와 웨스트 코스트(West Coast)로 나누어졌다. 전체적인 실루엣으로는 오버사이즈의 배기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색상이 보여졌다(강은지, 이정민, 2010). 대표 아이템으로는 스포츠 점퍼, 스포츠 저지, 스니커즈, 빅 펜던트 목걸이 등이 있다. 또한 뉴욕의 서부에서 발전한 웨스트 코스트 힙합에서는 크게 두 가지 패션 스타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공한 흑인 뮤지션들을 대변하는 게토 페블러스(Ghetto Fabulous)로 〈그림 23〉의 글램 스타일(Glam Style)이고, 다른 하나는 갱스터 랩의 유행으로 확산된 〈그림 24〉의 갱스터 스타일(Gangster Style)이다. 먼저 갱스터 스타일은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갱스터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을 모방하여 화려하고 컬러풀한 색상의 빅 사이즈 배기 스타일 실루엣이 유행하였다(박한힘, 2011). 글램 스타일은 당시 힙합 음악의 특징으로 나타나던 성공이나 부에 대한 열망을 가진 성향을 내포하고 있어(양미경, 2003)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아이템이 주를 이루며, 특히 여성들이 핫팬츠와 민 소매 셔츠 등의 관능적인 아이템이 대부분이다(박송애, 2015). 또한 1990년대에는 국내에 힙합 문화가 들어오면서 활동적이고 스포티브한 실용적인 세미 힙합이라는 한국 힙합 패션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하였다(김영대 외, 2008)(그림 25).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힙합 음악의 유지기라 불리며 남부 출신 힙합 뮤지션들의 스타일이 유행했으며, 동시에 갱스터 스타일이 남자 힙합 패션 스타일을 주도했다. 이 시기부터 힙합 패션

은 다양한 문화와 결합되며 새로운 스타일을 탄생시켰는데, 믹스 앤드 매치로 힙합의 감성을 살린 〈그림 26〉의 프리프 합(pre-hop), 〈그림 27〉의 정장 힙합 스타일인 슬림 포멀 슈트(Slim Formal Suit), 스포츠와 스트리트 캐주얼이 결합된 〈그림 28〉의 스컬번(Skurban), 그런지, 해골 등의 어둡고 강한 이미지인 〈그림 29〉의 힙합 고트(Hip Hop Goth), 신체 장식에서 시작하여 패션 아이템으로 나타나는 〈그림 30〉의 힙합 타투(Hip Hop Tatto)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새로운 스타일들은 2000년대 이후 전체적으로 타이트하면서도 슬림한 직선적 실루엣과 톤 온 톤 배색의 차분하고 세련된 색상이 주를 이루었다(박한힘, 2011).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 힙합 전문 TV 프로그램의 인기로 힙합 음악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음악 장르와 결합하여 감각적이고 개성있는 특징이 나타남에 따라 과거 힙합 패션의 화려한 색상과 크고 험령한 드림 실루엣에서 벗어나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트렌드들과 결합하여 슬림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들을 바꾸었다.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국내 힙합 패션 스타일로 자리 잡은 스포츠와 스트리트 캐주얼이 결합한 〈그림 31〉의 힙합 스트리트 캐주얼은 그동안 남성복 브랜드라는 성향이 짙었지만 여성 힙합 뮤지션을 전문적으로 다룬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여성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여성라인 론칭 및 〈그림 32〉의 드링크스캔코드(DRINKSCANCODE), 〈그림 33〉의 루스리스(RUTHLESS), 〈그림 34〉의 미스치프(MISCHIEF), DAQD 같은 여성 전문 힙합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여성 전문 힙합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들은 여성의 강인함과 여성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는 스타일을 추구하며, 자유로움과 올드 스쿨을 기반으로 한 레트로 빈티지 스타일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비비드한 칼라와 편안한 실루엣, 캐주얼한 유니섹스 디자인으로 오늘날 트렌드를 반영시키고 있다. 이렇듯 국내 힙합 패션은 한때의 유행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문화와의 결합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점차 더 대중화되었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시기별 힙합 패션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초창기 힙합 음악의 거칠고 남성적인 특징에 따라 힙합 패션 역시 빅사이즈의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상이 주로 보여졌다. 또한 현재 힙합 음악이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으로 인해 부드러운 사운드의 얼터너티브 힙합 등 새로운 음악장르를 만들어내면서 패션 역시 다양한 트렌드와 결합하여 슬림한 실루엣에 차분하고 세련된 색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힙합의 음악적 특성이 여성 힙합 패션에 미친 영향을 국내 최초 여성 힙합 서바이벌 언프리티 랩스타(Unpretty Rapstar)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한다.

Ⅲ. 국내 여성 힙합 패션 분석

1. 국내 최초 여성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Unpretty Rapstar)』에 나타난 여성 힙합 패션 분석

1) 아이템 및 실루엣

1990년대 초창기 국내 힙합 패션의 특징은 남녀 모두 자신의 사이즈보다 크게 입어 오버사이즈의 큰 셔츠와 엉덩이에 걸친 바지가 보여졌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게토 페블러스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글램 스타일의 타이트하고 페미니즘적인 여성의 몸매를 드러내는 특징을 보였다. 이후 2010년대부터는 힙합 음악이 다양한 음악 장르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장르들을 만들어내면서 힙합 패션에서도 남녀 구분 없는 젠더리스적 성향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타났다. 남성 힙합 패션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패션스타일들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들이 보여졌다. 특히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여성 힙합 스트리트 캐주얼이 유행하면서 실생활에서도 세련되게 연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상의에는 오버사이즈의 스위트 셔츠나 후



〈그림 35〉 스타디움 점퍼
(출처: <http://tv.mnet.com>)



〈그림 36〉 라운드넥 셔츠
(출처: <http://tv.mnet.com>)



〈그림 37〉 트레이닝복
(출처: <http://tv.mnet.com>)



〈그림 38〉 스키니진
(출처: <http://tv.mnet.com>)



〈그림 39〉 하이톱스니커즈
(출처: <http://tv.mnet.com>)



〈그림 40〉 스냅백 약세서리
(출처: <http://tv.mnet.com>)



〈그림 41〉 제시
(출처: <http://tvdaily.asia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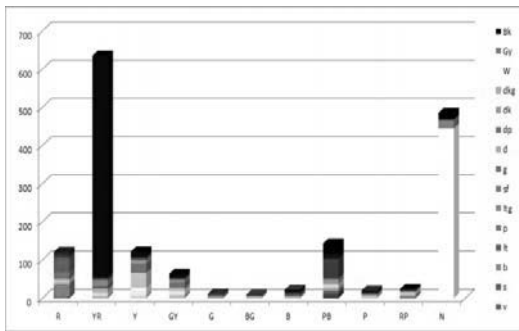
〈그림 42〉 트루디
(출처: <http://entertain.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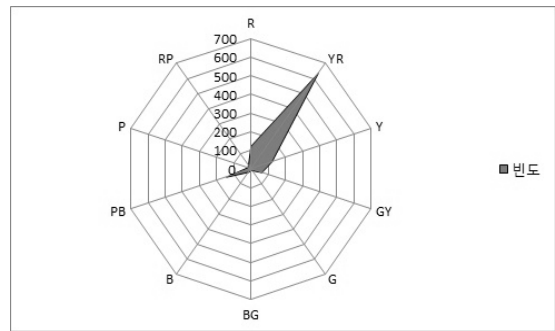
〈그림 43〉 키디비
(출처: <http://www.newsen.com>)

디를 입고 하의는 쇼트 팬츠 또는 스키니 진을 매치하거나, 반대로 상의는 타이트한 크롭 톱을 입고 하의는 트레이닝 팬츠를 입는 등 오버사이즈핏과 슬림핏을 적절히 매치하여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며 활동적이면서도 여성미를 강조한 힙합 패션이 특징이다. 이렇듯 오늘날 힙합 패션이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데는 TV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Unprety Rapstar)의 인기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한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을 살펴보면, 시즌 1 출연자 <그림 41>의 제시는 중저음의 묵직한 톤을 가진 뮤지션으로 90년대 인기그룹 TLC의 속옷 밴드가 보이는 스타일링과 크롭 톱으로 글래머러스 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을 보여주었다(HIPHOPPLAYA, 2016). 또한 파워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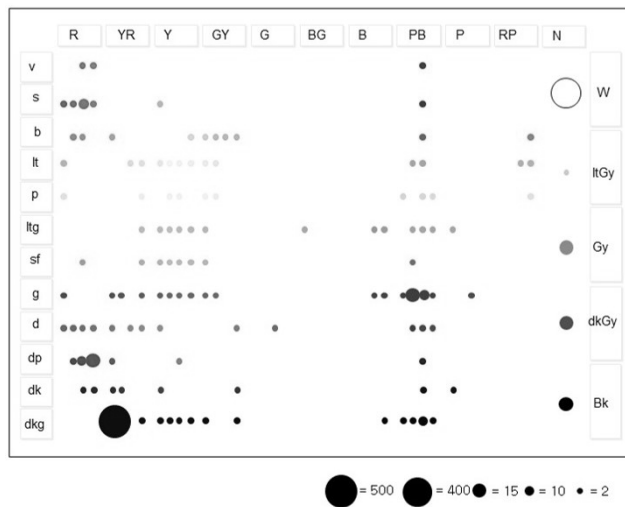
랩핑의 시즌2 출연자 <그림 42>의 트루디는 본인의 음악 스타일처럼 80년대 올드 스쿨룩의 원색적이며 스포티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허스키 하면서도 깊이 있는 랩핑을 하는 시즌2의 출연자 <그림 43>의 키디비는 90년대 글램 스타일과 같이 타이트하면서 몸매를 드러내는 여성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대표적인 스타일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아이템은 크게 아우터, 이너, 팬츠로 분류된다. 아우터 같은 경우는 <그림 35>와 같이 스타디움 점퍼나 블루종, 저지재킷 같이 활동성이 강한 오버사이즈의 실루엣이 많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여성의 볼륨있는 몸매를 강조하기보다는 실용적이면서 젠더리스 스타일이 주로 보여졌다. 이너는



<그림 44> 여성 힙합 패션에 나타난 색상 및 색조 분석



<그림 45> 여성 힙합 패션에 나타난 10색상 분포도



<그림 46> 여성 힙합 패션에 나타난 대표색






〈그림 36〉처럼 라운드넥 셔츠나 후디 같이 몸에 붙지 않는 여유 있고 편안한 루즈핏 실루엣이 많이 보여진다. 또한 팬츠의 경우 〈그림 37〉과 〈그림 38〉 같이 대체적으로 타이트한 스키니 진이나 트레이닝복, 스트레이트 컷의 직선적이면서 슬림한 핏의 스타일이 많이 보여진다. 또한 다양한 의류 제작 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러가지 프린트 기법 등을 활용한 화려한 디자인들이 나타났다. 모자는 자수나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스냅백, 다양한 컬러의 비니나 볼캡, 버킷햇 등의 아이템들이 많이 보여졌다. 버킷햇과 볼캡은 90년대에 유행했던 올드스쿨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2010년대 이후 복고풍의 유행으로 인해 더욱 세

련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다시 유행되고 있으며, 액세서리 역시 복고풍으로 인해 〈그림 40〉과 같은 굵은 골드 체인 목걸이와 빅 사이즈 링 귀걸이 등 화려한 금속으로 된 장신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신발은 컴뱃 부츠나 〈그림 39〉의 하이톱 스니커즈가 주로 나타나 의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활동성 있는 중성적인 유니섹스 스타일이 많이 보여졌다.

2) 색채

위와 같이 언프리티 랩스타(Unprety Rapstar)에 출연한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이미지를 통해 패

〈표 3〉 국내 여성 힙합의 음악적 특성에 따른 패션스타일 분석

구분			
사회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사회진출 •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 • 강한 여성상에 대한 열망과 동경 • 남성권력에 반대하며 여성이 성적 주체임을 강조 	
음악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미니스트적인 색을 나타내는 얼터너티브 힙합 • 알앤비의 부드러운 느낌을 더한 네오소울 힙합 • 초창기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 정신을 주제로 다뤘으며, 상업화됨에 따라 사랑, 이별 등 다양한 주제로 확대됨 	
패션의 특성	실루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젠더리스적 성향으로 오버사이즈 핏과 슬림핏을 적절히 매치하여 활동적이면서도 여성적인 실루엣을 강조 	 <p>오버사이즈 실루엣 (출처: http://tvmmnet.com2)</p>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과 화이트가 대표적이며, 세련되고 편안한 dark grayish 색조의 무채색이 주를 이룸 	 <p>dark grayish 의상 (출처: http://tvmmnet.com)</p>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패션스타일들과의 결합으로 스트레치성 소재, 저지, 가죽, 데님, 퍼 등 소재의 다양성이 보여짐 	 <p>스트레치성 소재 (출처: http://tvmmnet.com)</p>
	아이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성이 강한 루즈한 핏의 스타디움 점퍼, 저지재킷, 라운드넥 셔츠, 후디, 청바지, 트레이닝 팬츠 등이 주로 보여짐 	 <p>스타디움 점퍼 (출처: http://tvmmnet.com)</p>
	악세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고풍의 유행으로 볼드한 체인 목걸이, 링 귀걸이, 선글라스, 스냅백, 비니, 스니커즈, 컴뱃 부츠, 하이톱 스니커즈 등이 나타남 	 <p>악세서리 (출처: http://tvmmnet.com)</p>

선 아이템들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44>와 같이 수집된 색채 데이터 총 1,658개의 색채 데이터 중 무채색이 485개(29.3%), 유채색이 1,173개(70.7%)이며, 무채색의 색상 분포는 W(26.8%)>Gy(1.4%)>Bk(1.1%) 순으로 W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유채색의 색상 분포는 YR(54.2%)>PB(12.2%)>Y(10.4%)>R(10.4%)>GY(5.5%)>RP(2.0%)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5>의 색조 분포도를 살펴보면 dk(39.1%)>g(6.2%)>ltg(3.9%)>d(3.4%)>dp(3.3%)>dk(2.6%)>lt(2.4%)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YR, PB, Y, R 계열의 색상이 dk, g, ltg, d 톤을 중심으로 색채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색상과 색조를 추출하여 <그림 46>과 같은 대표색을 추출하였다. 대표색을 보면 YR, PB, Y, R, GY 색상이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YR에서는 dk 색조의 경향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와 같이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패션은 전체적으로 초창기 힙합이 등장하던 시기에 원색적이고 화려한 색채에서 벗어나 Bk, W 등 무채색의 비중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최초 여성 힙합 서바이벌 언프리티 랩스타(Unpretty Rapstar)를 통한 2015년대 여성 힙합의 음악적 특성에 따른 패션 스타일을 정리한 표는 다음 <표 3>과 같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 힙합의 음악적 특성을 살펴보고, 국내 여성 힙합 뮤지션의 패션 스타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대 후반 힙합 음악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 TV 프로그램들의 출현과 2015년 국내 최초 여성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Unpretty Rapstar)가 방영되면서부터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음악 및 패션이 유행되기 시작하여 스트리트 캐주얼 시장에서 여성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를 증가시켰다. 여성 힙합 음악은 1980년대 남녀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페미니즘적인 특징이 나타났으며, 1990년대에는 네오소울이라 불리는 알앤비와 힙합음악이 결합한 얼터너티브 힙합이 등장하였다. 2000년대 이

후부터는 다양한 음악장르와의 결합으로 개성적이고 다채로운 음악적 특성들이 나타남에 따라 여성 힙합 패션 역시 다양한 스타일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패션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여성 힙합 패션은 1990년대 대표적인 여성 힙합 패션 스타일인 글램 스타일의 화려하고 관능적인 특징을 보였으며, 2000년대 이후 힙합 스트리트 캐주얼의 등장으로 오버사이즈핏과 슬림핏을 적절히 매치하여 여성미를 잃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스타일이 주로 나타났다. 현재에는 여성 전문 힙합 스트리트 캐주얼 브랜드들이 생겨나면서 오늘날 트렌드를 반영한 캐주얼한 유니섹스 디자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성 힙합 패션은 2010년대 이후 힙합 관련 TV프로그램들의 등장으로 인해 대중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유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국내 최초 여성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Unpretty Rapstar)의 여성 힙합 패션을 분석한 결과, 팬츠에서는 스키니 데님이나 트레이닝복, 스트레이트 컷의 디스트로이드 데님 같이 직선적이면서 슬림한 핏이 많이 보여졌다. 아우터에서는 스타디움 점퍼나 저지 재킷의 활동성이 강한 오버사이즈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으며, 굵은 골드 체인 목걸이와 빅 사이즈 링 귀걸이 등 화려한 금속 장신구는 힙합이 오늘날까지 오면서 크게 변하지 않은 유일한 특징으로 보여졌다. 또한 색채를 살펴보면, 무채색은 W>Gy>Bk 순으로 W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유채색의 색상 분포는 YR>PB>Y>R>G>Y>RP 순으로 나타났다. 색조 분포는 dk>g>ltg>d>dp>dk>lt 순으로 나타났으며, YR 색상의 dk 색조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인기가 단순히 음악과 패션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하나의 새로운 소비영역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국내 여성 힙합 패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강수진. (2015. 2. 11). 이 가수를 주목해봐 러버소울.

- 스포츠경향. 자료검색일 2015. 3. 1, 자료출처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 ew&art_id=20_1503011741313&sec_id=540301&pt=nv
- 강은지. (2010). *국내 힙합뮤지션의 패션스타일 유형 별특징*.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지, 이정민. (2010). 국내 힙합뮤지션의 패션유 형별 스타일링 분석. *한국복식학회*, 60(6), 62-73.
- 김영대, 김봉현, 윤호준, 조일동, 최지호, 이상현. (2008). *한국힙합: 열정의 발자취*. 서울: 한울.
- 김영인, 김신우, 김정신, 김희연, 송금옥. (2006). *룩 패션을 보는 아홉가지 시선*. 경기: 교문사
- 김윤. (2012). 대중문화로서 국내 힙합 패션 트렌드 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2(1), 19-38.
- 김정원, 김현호, 박준우, 심은보, 이인성. (2014). *아 메리칸 힙합2*. 경기: 휴먼카인드북스.
- 김지후. (2016. 4. 14). 다시 돌아온 1990년대 스타 일. allure. 자료검색일 2016.08.06, 자료출처 <http://www.allurekorea.com/2016/04/14/>
- 김태한. (2008). *한국 힙합음악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 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정. (2014. 2. 20.). 트레비스 페인, 투애니원 보면 엠 보그 TLC 떠올라, 텐아시아, 자료검색일 2016. 8. 6, 자료출처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21812>
- 네이버뮤직. (2016. 2. 22). 믿고 듣는 아티스트, 지코 컴 백, 네이버뮤직. 자료검색일 2016. 8. 16. 자료출처 [http://music.naver.com/promotion/specialContent.nhn? artic leId=6595](http://music.naver.com/promotion/specialContent.nhn?artic leId=6595)
- 박송애. (2015). 셀러브리티 패션에서 표현된 게토 스타일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17(3), 197-206.
- 박찬은. (2013. 10. 30). 응답하라 1990's 걸그룹이여. 매일경제. 자료검색일 2016. 8. 6, 자료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 o=1057812>
- 박한협. (2011). 힙합문화의 음악적 특성 변화가 대 중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19(2), 416-429.
- 양미경. (2003). 하위문화 맥락에서 본 패션스타일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1), 33-45.
- 양재영. (2002). 여성 힙합의 제목소리 찾기1. weiv. 자 료검색일 2015. 10. 25. 자료출처 <http://www.weiv.co.kr /archives/11141>
- 유지윤. (2015. 4. 22). 힙합 패션의 변천사 (Part1). hiphople. 자료검색일 2015.10.25, 자료출처 <http://hiphople.com/lifestyle/3886045>
- 유지윤. (2015. 4. 28). 힙합 패션의 변천사 (Part2). hiphople. 자료검색일 2015.10.25, 자료출처 http://hiphople.com/index.php?mid=life_feature&c ategory=500219&document_srl=3921388
- 이규탁. (2011). 한국 힙합 음악 장르의 형성을 통해 본 대중문화의세계화와 토착화. *한국학연구*, 36, 59-84.
- 이동연, 신현준, 이정엽, 김병오. (2012). *대중음악의 이해*. 서울: 한울.
- 이보연. (2015). *한국 여성 힙합 아티스트에 관한 연 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2014). *한국 대중가요 속의 여성*. 서울: 대한 민국역사박물관.
- 이인성, 이순자, 최보영, 이민정, 손이정. (2006). 힙 합 뮤지션의 패션 스타일 연구-흑인 뮤지션 스 타와 국내 힙합 뮤지션의 비교 연구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8(1), 127-136.
- 이지현,정은숙. (2002). Hip-hop Fashion에 나타난 스타일 연구 -국내외 Hip-hop 뮤지션을 중심으 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6(1), 116-127.
- 윤여훈. (2004). *비주류 문화의 산업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동윤. (2015. 5). 랩하는 여자는 다 예뻐. GEEK, 자 료검색일 2016. 8. 6, 자료출처 http://navercast.naver.com/ magazine_contents.nhn?rid=1798&contents_id=89546
- Edwards, P. (2015). *힙 투더 힙 힙합(최경은 역)*. 서 울: 한스미디어. (원저 2015 출판)
- Frith, S., Straw, W., Street, J. (2005). *케임브리지 대중 음악의 이해(장호연 역)*. 서울: 한나래.
- HIPHOPPLAYA. (2016. 4. 6). 유행은 돌고 돈다, 돌 아온 힙합패션. HIPHOPPLAY A. 자료검색일 2016. 8. 6, 자료출처 <http://post.naver.com/viewer /postView.nhn?volumeNo=3968616&memberNo= 16707781>
- Judith, T., & Ellen, K. (2002). 음악에서의 여성(이미 배 역). *한국서양음악학회*, 5, 115-156.
- Jeff, C. (2014). *힙합의 역사: 멈출 수 없는 질주(유영 희 역)*. 경기: 음악세계. (원저 2007 출판)
- Shuker, R. (1999). *대중음악사전(이정엽, 장호연 역)*. 서울: 한나래. (원저 1998 출판)
- Starr, L., & Waterman, C. (2015). *미국대중음악: 민트 렐리티부터 힙합까지, 200년의 연대기(김영대, 조 일동 역)*. 경기: 한울. (원저 2013 출판)